

第18回 水道심포지엄 開催

—雪嶽山에서, 質的인 向上, 合理的인 經營을 主題로—



第18回 水道심포지엄이 90. 4. 27~28 2日間 全國의 上水道關係人士 約 400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東草市 뉴설악호텔 大會議室에서 協會 主催로 성대히 開催되었다.

第1日은 開會式에 이어 論文 및 事例發表와 綜合討論의 順으로 終日 進行되었으며 下午 7時부터는 大宴會室에서 本會 崔鍾浣會長이 招請하는 심포지엄 參席人士를 환영하는 리셉션이 있었다. 한편 심포지엄과 동시에 優秀 水道機資材도 展示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發表된 主要 論議은 다음과 같다.

- 서울市 上水道事業의 經營分析과 獨立 採算을 위한 提言 (朴亨錫 서울·上水道事業本部 經營管理局長)
- 上水道 配·給水施設의 合理的인 計劃과 管理 運營의 效率化 方案(金水源 啓明大學校 教授)
- 水源 汚染에 따른 高度 淨水處理시스템 開發에 관한 研究(姜龍泰 東亞大學校 教授)
- 飲料水에 含有된 微量 汚染物質의 除去(朴永圭 嶺南大學校 教授)
- 上水道 消毒時 破壞點 鹽素注入에 대한 力學的 모델(李燦基·金俊賢 江原大學校 教授)
- 飲用水 消毒劑의 安全性에 관하여 (玉致相 高神大學 教授)
- 水道料金 原價節減을 위한 電力料 引下 對策(具鍾會 韓國水資源公社 機電部長)

제18회 수도심포지엄

개 회 사

오늘 저희 협회에서 주최하는 제 18회 수도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박용승 건설부 상하수도 국장님과 홍순홍 속초시장님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리켜 보면 작년의 제 17회 수도심포지엄이 있을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굉장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정치 변혁이란 이데올로기 보다도 경제개발과 생활향상을해서 잘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세계적으로 팽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물결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제개발 우위적인 이러한 세계 사조에서 경제개발의 가장 주축이 되는 힘은 과학기술의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지니는 가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가치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여러나라 중 지구상에 있는 많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 형태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이 있는 나라는 모두 선진 자본 자유국가 이고, 선진 사회주의국가, 공산국가 입니다. 또 과학기술이 없는 나라는 모두 정치 형태에 관계없이 공산주의를 하던지 사회주의를 하던 간에 결국 후진국이라는 상황을 보더라도 과학기술이 지니는 가치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심포지엄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모임으로 되어있다 는데 대한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도에 대한 욕구는 그 전과는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전에는 질보다도 우선 수도공급만 받으면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는 작년 수도파동을 보더라도 국민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수도에 대해서 냉혹하리 만큼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도는 아직 양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특히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수도사업자의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보호, 정수 처리과정, 송·배·급수계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갖는 수도심포지엄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행사로서 기술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가운데 생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연구 결과의 발표와 함께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산업으로 만들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실 논문을 오랫동안 노심초사해서 만들어 주신 교수님들과 여러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신 건설부와 한국수자

원공사 관계관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포지엄을 갖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내부부 관계관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나라 수도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설악의 맑은 공기와 훌륭한 경치를 아울러 즐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 4. 27

사단법인 한국수도협회
회 장 최 종 완

축 사

한국수도협회 최종완 회장님, 속초시장님, 논문주제발표와 토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수도관계전문가,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곳 강원도 속초에서 제 18회 학술심포지엄을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옛부터 산 좋고, 경치 좋고, 인심 또한 좋기로 유명한 고장이며 또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등줄인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고봉준령이 수려한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과 세계적인 관광지인 설악산이 있으며 아름답고 긴 해안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속초시는 1종항으로서 인근의 양양철광석의 적출항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광이 수려한 동해, 유명한 척산온천과 해수욕장 등이 산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양지로도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복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신도시와 2백만가구 주택건설, 맑은 물 공급 대책, 교통완화 대책 등 시책을 내놓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산하와 호수는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으며, 또한 물은 생명의 모체인 동시에 산업과 생산활동 등의 기본요소로서 그 역할과 효능을 다하고 있는 귀중한 국가자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질개선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및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생공용수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반면,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한 수질보전과, 원수를 고도 정수처리하는 기술개발 등 물의 정수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소득수준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상수도 수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의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심포지엄을 통해 각기 연구하고 실험한 경험과 지식을 교환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것은 수도인들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도 수질에 대한 국민 앙케이트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면 위생상 나쁘다는 인식과 기호의 고급화로 미네랄 워터 음용이나 수도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 사용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없애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시설확충과 기술개발이 시급하고, 하천의 수질오염방지과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수하는 마음을 국민학교 어린이에서 부터 깊이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수도인들이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국민을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비누로 세탁하고, 그릇의 기름찌거기는 물로 씻기전에 휴지로 닦아내고, 유원지, 공원 등에서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오염방지를 생활화하도록 몸소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야 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에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국민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어비스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물”을 “값싼 가격”으로 풍부하게 공급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은 우리 수도인 모두가 노력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물은 유한하며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필요가 있어 정부는 댐사업과 연계한 광역상수도를 확충하여 지방도시에 대한 급수혜택을 꾸준히 확대시켜 온데 힘입어 '89년말 현재 상수도 보급율은 76%, 1일 1인당 급수량은 330ℓ로서 1970년의 33%, 158ℓ, 1980년의 55%, 256ℓ와 비교할때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 왔으나, 아직 일본의 93%, 378ℓ, 미국의 98%, 678ℓ 등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시설투자 확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질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계획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고도의 정수처리 기술을 보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상하수도 기술보급과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기술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도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협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엄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현실성 있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현실적인 논의가 앞으로 상수도분야 업무 개선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수도정책에 획기적인 발전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심포지엄을 주체하여 주신 한국수도협회 최종원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0. 4. 27

건설부 상하수도국장 박 용 승